

'전북형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 · 전략 모색

도, 10월 소통의 날 행사 개최... '첨단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육성 위한 BIN 기반 혁신 생태계' 주제 초청 특강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10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도청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김현우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을 초청해 '첨단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BIN(Business & Innovation Network) 기반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김현우 단장은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을 합친 수준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 개관 이후 도시재생사업 선정, 강소특구 지정, 글로벌센터 개관 등 단계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 왔고,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강연을 통해 농생명산업 기반을 활용한 전북형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과 특별자치도 특례를 연계한 산업 생태계 확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10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 도청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첨단재생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5개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우리 도가 가진 농생명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 역량,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례를 연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바이오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도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소통의 날을 통해 도청 현안 공유와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직원 역량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군산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비 가상방역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비해 29일 오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상방역 현장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훈련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주 가축질병방역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협, 생산자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실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산 야산에서 야생멧돼지 ASF 양성 개체가 확인되고 △양돈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초동방역팀 긴급 투입, 살처분 절차 시연, 거점소독시설 운영, 차량·장비 소독 등 일련의 대응 절차를 실천처럼 점검했다.

특히 도·시군·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의심축 신고에서부터 살처분, 소독, 통제초소 운영까지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축협과 생산자단체가 능가 차단방역 홍보 및 방역물자 지원에 참여하는 등 민간 협력체계도 함께 강화했다.

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행 중심의 방역체계와 공조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높여 청정 축산 기반을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119 상담목' 전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응급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전북119상담목'을 오는 11월 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119상담목'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안내, 병원선정 지원등을 제공하는 비대면 구급상담 서비스다.

연휴나 야간 등 의료공백 시간대에도 도민이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응급상황 대응력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만호 기자

명예퇴직 등 인사요인 발생으로 11월 수시인사가 단행되며 총 26명의 승진 내정자가 확정됐다. 이번 인사는 과장급 1명, 팀장급 1명, 6급 이하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승진 인사는 명예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보충 인사 성격으로, 조직 통솔력·업무추진능력·전문성 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게 될 과장급 인사에서는 조직 화합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 평가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유일한 과장급 승진 내정자는 정길웅 주택건축과 건축정책팀장(건축직)이다.

팀장급 승진자는 정진모 주택건축과 소속(건축직) 1명으로 확정됐다.

6급 이하 승진 인사는 총 24명이며, 이 중 8급 승진자 17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급 승진자는 4명, 6급

승진자는 3명이다.

주요 6급 승진자는 △박경현(감사위원회사무국, 행정직) △조운주(바이오방위산업과, 행정직) △이상아(주택건축과, 건축직) 등이다.

7급 승진자는 △조승연(디지털산업과, 행정직) △한보경(감사위원회사무국, 전산직) △박형식(관광산업과, 토목직) △오세은(회계과, 방송통신직) 등 4명이다.

8급 승진자는 총 17명으로 △고윤석(사회복지정책과, 행정직) △김승환·최정하(세정과, 세무직) △류영우(총괄지원과, 세무직) △박가인(청정에너지수소과, 전산직) △정해천(바이오방위산업과, 전산직) △지한민(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직) △한세민(문화산업과, 사서직) △김시은(보건환경연구

원, 기계직) △나재운(수안기술연구소, 전기직) △정석현(농업기술원, 전기직) △송다연(이차전지탄소산업과, 화공직) △신호산(축산과, 축산직) △설재희·정수연(산림자원과, 녹지직) △이수민(수안기술연구소, 해양수산직) △박성빈(동물위생시험소, 운전직) 등이 있다.

이번 인사는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부서 간 인력 불균형 해소와 함께 양성평등, 소수직별 배려 원칙이 적용됐으며, 근무기간·연령·성과평가 결과 등이 종합 반영됐다.

특히, 도(道) 전임 인원의 경우 7급은 1년 이상, 8급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을 심사해 형평성을 높였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9일 ㈜휴비스 대운동장에서 '제35회 노사발전 한마음 대회 및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가요제'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노-사 함께 협력과 화합 다져

전북자치도, 제35회 노사발전 한마음 대회 성황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휴비스 대운동장에서 '제35회 노사발전 한마음 대회 및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가요제'를 개최하여 노동계와 도민이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윤수봉 운영위원장, 나인권·강동화·최형열·국주영은·강태창 도의원, 전주·군산·익산 고용지청장,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을 비롯한 도내 각계 관계자와 노동자·도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해 노사 간 상생과 도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1부 행사로 열린 '노사발전 한마음

체육대회'는 축구와 족구 경기 등을 통해 노사가 함께 어울리며 협력과 유대감을 다졌다. 이어진 2부 '도민가요제'에서는 도민들이 무대에 올라 직접 노래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열띤 호응을 얻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인 만큼, 도민과 함께 마음을 모아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 땀흘리며 협력과 화합을 다진다'는 취지 아래 마련된 자리로,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움직임에 도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만호 기자

"전주 솔로몬로파크 5년째 표류"

민주 이성운 의원 "법무부, 책임있게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국회 제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은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법무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솔로몬로파크는 2020년 국회에서 212억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나 철거·부지조성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법무부, 기재부, 전주시, LH 간 수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있는 결정 없이 대체 부지 논란만 반복되며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 그 사이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403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에서야 관계기관 협의 결과 전주지법·지검 이전 부지(덕진동 원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신청의 법정기한(2026년 12월)이 불과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사업비

증액 협의와 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법·검찰청 이전 부지(덕진동 1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국민이 법을 쉽게 배우도록 △입법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등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형태의 시설은 현재 대전·부산·광주에서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단순한 법교육시설 건립을 넘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유류 국유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이성운 의원은 "법무부가 총괄처로서 예산 증액 협의, 설계 착수, 실시계획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정기한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출향도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다짐

전북도민회중앙회 · 경기북부도민회 등 출향도민 10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출향도민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와 경기북부도민회 등 수도권 출향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미래 비전 실현과 올림픽 유치 추진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출향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행사장에서는 올림픽 성공 유치를 염원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전북 출신 연주자들의 축하공연이 더해져 감동과 열기가 함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출향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올림픽 성공유치의 마음을 모은다면 이는 곧 현실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달하였다.

곽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 전북에 있다"며 "전국의 출향도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뭉쳐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